

지방 中心의 보수교육 강화를



지부의 입장에서

전북지부장 공 순 구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맞이할 1976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의 협회를 모든 회원들이 더 많은 애정과 정성으로 몰을 주고 가꾸는 해가 되어야 하겠고 우리의 간호사업에 대한 자량과 긍지와 성취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급격한 사회변동과 고도의 의료 사업 발전은 간호원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새로운 간호철학의 확립입니다. 이것은 물론 간호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협회가 협조해 주셔야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976년에는 간호원 자신이 교육을 통하여 자질 향상을 기하

도록 중앙 중심이 아닌 지방 중심의 보수 교육 제도에 중점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각 대학의 연구실 혹은 술한 학술 강연회 그리고 빈번하게 열리는 각종 세미나를 통하여 뜻만 있으면 보고 듣고 배울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그러한 기회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고 건적으로 1년에 한번 있는 보수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아야 되고 배우고 싶은 마음에 목말라 하는 지방 간호원의 실정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가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을 없애고 산간 벽촌의 간호원까지가 고루고루 이 보수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이 참으로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임상간호원, 양호교사, 보건간호원 등 각 분야별 교육내용을 묻는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분야별로 요구하는 교육내용에 적절한 보수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둘째, 그 지방 실정에 알맞는 보수교육 Program을 작성하여 1년 12개월을 11개 지부에 1개월씩 할애(1~2일에 끝나는 단기교육이 아닌) 이동교육을 실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세째, 이것은 협회와 지부의 연중사업계획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강사진은 반드시 중앙에서 선정 차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해야 되는가는 우리 전북지부의 실체를 물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전북지부 보수교육에 회장님을 비롯하여 중앙에 계시는 강사님이 초빙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북지부 창립 이후 가장 많은 인원(44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수강료를 지불해도 좋으니 자주 이런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절실한 열의와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보수 교육에 기대하는 지방간호원들의 정당하고도 솔직한 바람인 것입니다.

어느 때 보다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시는데 헌신 봉사하신 회장단, 중앙이사, 특별위원, 앞차고 지혜롭고 우리의 살림을 구려오신 실무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